



세월호 미수습자 4명 확인...남은 5명 언제쯤

세월호 참사 발생 1135일 만에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양이 에타게 기다리던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미수습자 9명 중 사실상 4명이 수습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객실구역(4-11)에서 수습된 뼈 3점의 DNA를 분석하고 치아와 치열을 감정한 결과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조 양이 발견된 세월호 4층은 지난 11일 조 양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담긴 가방이 발견된 장소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 가장 컸던 곳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조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또한 바로 4층이었다. 세월호 4층 객실에서 온전한 형태로 수습된 유해는 발견 당시부터 조 양으로 추정됐다.

세월호가 목표 신호로 거처 된 이후 수습된 유해 중 가장 먼저 신원이 확인된 미수습자는 지난 17일 확인된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다. 지난 5일 세월호 침몰해역의 특별수색구역(SSZ 2)에서 진행된 바다 밑 수색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발견됐고 감정

4층 선미 유해는 조은화양 수색구역 44개 중 19개 남아 4층 선수 남학생 있을 가능성

결과 고 씨로 확인됐다.

고 씨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틀이 지난 19일에는 단원고 허다운양의 신원이 밝혀졌다. 지난 16일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 구역(3-6)에서 수습한 치아와 치열 등을 분석한 결과 허 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4층 객실에서 수습된 유해가 25일 조은화양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고창석씨와 허다운양, 조은화양을 포함한 3명이다. 지난 22일 구명조끼를 착용한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유해의 옷에서 일반인 미수습자인 이영숙씨의 신분증이 발견되면서 유해는 이영숙씨로 추정되지만 현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를 진행중이다.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않은 이영숙씨로 추정되는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수습된 셈이다.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박영인군, 남현철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씨, 권재근씨와 권씨의 아들인 혁규군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고 있을 곳으로 알려진 세월호 4층 선수 쪽은 단원고 남학생 2명과 교사인 양승진 씨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4층 선수 쪽은 박영인군의 교복 상의와 남현철군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이 머무른 곳으로 파악되는 3층은 일반인 객실이 있어 권재근씨와 혁규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9명의 미수습자 중 2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허다운양이 세월호 3층에서 발견됨에 따라 아직 수습되지 않은 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김한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3~5층의 44개의 수색구역 중 25구역에 대한 수색작업이 끝났다"며 "남은 19개의 구역에 최대한 빨리 수색에 착수,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어르신은 행복해 25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서구 어르신 행복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흥겨운 율동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빌린 돈 수십억원 안 갚은 건설회사 회장 등 3명 영장

협력업체에서 자금을 빌렸다가 수십억 원을 갚지 못한 광주 모 건설업체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중견 건설업체 회장·사장·전무 등 3명을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수십억 원을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자금 수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들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설업체는 광주를 기반으로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 지난해 만기 도래한 수익원의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일 금남로서 5·18 부활제...막바지 행사 다채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 주먹밥 나눔·오월음악회 등 열려

주말인 27일 광주시 금남로 5·18민중광장에서는 5·18부활제를 비롯한 다양한 5·18기념행사 펼쳐진다. 마을별, 시·군별 막바지 5·18기념행사도 주말과 휴일 곳곳에서 진행된다.

25일 제37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인 27일 오후 7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중광장에서 5·18부활제가 봉행된다.

5·18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열리는 부활제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맞서 최후의 항쟁을 벌이다 숨진 오월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

하는 의식이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18분 5·18광장에서는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가 진행된다.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는 전국 의 화가·만화가·시인 등 예술가 100인과 시민이 5·18광장에 함께 모여 5·18의 가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5월 문화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주제는 '광장의 꽃 1980~2017'. 참가자들은 1980년 광주의 광장부터 촛불로 타올랐던 2017년 광장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낼 예정이다.

밤 10시 같은 장소에서는 주먹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5·18 당시 시장 상인 등 시민들이 밥을 지어 민주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건넸던 나눔정신

을 재연하는 행사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 평촌부녀회, 광주 YMCA는 주먹밥, 돼지고기(수육), 김치, 막걸리, 홍어, 과일, 기장떡, 파전을 준비해와 5·18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나눈다. 오월 음악회, 박태진의 DJ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28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다.

지난 11일부터 5·18행사위 주관으로 진행되는 옛전남도청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28일까지 계속된다.

휴일인 28일 오후 2시 첨단2지구 근린공원에서는 북구 5·18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주먹밥 만들기 대회'가 진행된다. 여수시 5·18기념행사위원회는 27일 여수평화광장에서 5·18사건전을 개최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계엄군 무력진압에 도청서 최후의 항쟁...꽃잎처럼 스러져간 녀들

▲5월26일=새벽 4시 무렵 도청이 발각 뒤졌다. 계엄군이 광주 외곽 봉쇄지역 세 곳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밀려들어온다는 급보가 무전기를 타고 들어왔다. 계엄군 진입 소식으로 시민군에게는 비상령이 떨어졌다.

수습위원들은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죽음의 행진'을 결의했다. "우리들이 총알받이가 됩시다. 광주시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먼저 탱크 앞에 가서 죽읍시다." 길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뒤따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수백명의 대열이 됐다.

무장시민군은 전투조직(기동타격대)으로 전환됐다. 4차·5차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도 잇따라 개최됐다. 오후 5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도청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1시간 뒤 수습위원회도 마지막 회의를 했다. 그렇게



도청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저물어갔다.

▲5월27일=이슬비가 어둠을 적셨다. 도청·분수대 광장·금남로는 사람들의 인적이 끊겼다.

새벽 3시30분께 도청에 머물던 사람들과 YMCA·YWCA에서 들어온 지원자들에게 총과 실탄이 지급됐다.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군 최소 340명으로 추정된다. 새벽 3시50분께 도청 옥상의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1시간 뒤 수습위원회도 마지막 회의를 했다. 그렇게

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여인의 피맺힌 절규는 광주사람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꽃혔다.

새벽 4시 갑자기 도청 내부의 전등이 모두 꺼져버렸다. 그 순간 마지막 방송도 끊겼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청은 삼시간에 예비규원이 됐다. 새벽 5시10분께 YMCA·YWCA·계림초·전일빌딩·관광호텔 등이 계엄군에게 장악됐고, 도청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전은 끝났다.

항쟁의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아왔다. 1980년 5월 열흘을 걸친 광주시민의 무장투쟁도 막을 내렸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총 재산 29만원' 전두환

아들은 여성에 4천만원 명품시계 선물?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4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짜리 바세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제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전제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장취업 뒤 업주 협박 돈 뜯어



○~40대 남성이 중소 제조업체를 골라 취업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위협,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쇠고랑 신세.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A(42)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등 전국의 36개 중소기업에 위장취업한 뒤 "근로기준법, 건축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체 측을 협박한 후 4100만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은 "간혹학과 출신 A씨는 업체별로 짧게는 2~3일, 최대 20일 근무하는 동안 업체 측 약점을 수집하는데 열중했고 이를 빌미로 업체별로 4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뜯어낸 소위 '갑질 근로자'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 전환 아파트 24/35PY

분양문의 (062) **610-9232**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 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